



기아의 첫 목적기반 모빌리티 니로 플러스. 사진제공 | 기아

기아, '니로 플러스' 사전계약 개시

첫 PBV 차량...택시·업무용 두 가지 버전 제작  
차별화된 공간성 확보...1회 충전시 392km 주행

기아의 첫 번째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차량인 '니로 플러스'가 12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다. PBV는 대중교통, 의료 서비스, 배달, 캠핑 등 고객의 비즈니스 목적과 요구에 맞춘 친환경 다목적 차량이다.

니로 플러스는 택시와 업무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다. 1세대 니로 전기차(EV)를 기반으로 전고는 80mm 전장은 10mm 늘렸으며, 실내 구성을 최적화해 차별화된 공간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각각 맞춤 사양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회 충전 시 392km(17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 전비: 5.3km/kWh)를 주행할 수 있다.

택시 모델은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디스플레이'와 B필라 어시스트 핸들 등 2열 승객을 세심하게 배려한 편의사양을 담았다.

업무용 모델은 일상 목적의 운행에 필요한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춘 것은 물론 캠핑, 피크닉에 최적화된 '캠핑 패키지'도 선택사양으로 운영한다. 가격은 4621만~4904만 원이다.

원성필 기자 sereno@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어깨 통증·불편함 일으키는 '오십견'  
치료 타이밍 중요...방치하지 마세요

오십견의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기 어렵다고 '동결견'으로 부르기도 한다. 발병 초기에는 어깨 부위가 바늘로 찔리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방치하면 머리 위로 손을 올리기 어렵고 세수, 식사 등 일상생활도 불편해진다. 더 악화되면 팔, 뒷목 등이 아프고 저리는 듯한 증상을 경험한다. 오십견은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 환자 대다수가 발병 후 1~2년 이내에 자연 치유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오십견은 증상에 따라 1단계 통증기, 2단계 동결기, 3단계 용해기 등으로 나뉜다. 동결기를 거쳐 용해기에 접어들면 굳었던 관절이 서서히 풀리면서 관절운동 범위의 회복이 일어나는 듯한 경험을 한다. 이때 자연치유되는 것으로 여겨 방심하기 쉽다. 하지만 용해기라고 자연 치유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오십견이 의심되면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로 관절낭의 비후 소견 및 염증 소견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 체크한다. 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휴식, 진통소염제,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 등의 비수술 요법을 시행한다.

오십견은 통증이 호전된 후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절운동이 정상범위로 회복되도록 꾸준히 실천한다. 1년 이상 지속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 마취 및 관절 스트레칭, 관절경하 관절낭 유리술을 시행한다.



역곡정형외과 최용길 원장

5대 그룹 총수들, 대통령 취임식 만찬 참석

“헤드테이블로 오세요”...친기업 행보에 재계 화색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재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로 '기업이 이끄는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제시한 만큼,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5대 그룹 총수들이 취임식에 이어 만찬 행사에 참여한 것을 놓고 새 정부가 재계를 국정 운영 주요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례적으로 만찬에 기업인 대거 초청  
尹정부, 재계를 주요 파트너로 인정  
민간 협력 위한 규제 개혁 내세워  
尹 “첨단산업 성장 위해 협력 강구”

●민간 협력과 규제 개혁이 핵심

윤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인 일명 'Y(와이)노믹스'는 민간 협력과 규제 개혁이 키워드로, 기업 등 민간이 전면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웠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취임 첫날인 10일 오전 취임식에 이어 오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된 만찬 행사에 재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소통을 이어가는 등 스킨십을 늘리는 모습이다. 재계 총수들이 취임식 외인 만찬에 초청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그룹 회장, 정외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허창수 전국



외인 초청 만찬에서 건배제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만찬에 앞서 열린 리셉션에서 UAE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만찬장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뉴스1

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도 참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5대 그룹 총수들을 헤드테이블로 따로 불러 건배를 권하는 등 과격해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기업인들의 격을 높이고 기를 살리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대감

세계에서는 이날 만남을 계기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본격 조성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 정부가 이례적으로 취임식과 만찬 자리에 기업인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진 만큼, 기업들도 중장기적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윤 대통령이 만찬에서 “첨단 기술 공급망 복원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서 더욱 실천적인 협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첨단 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강조한 만큼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새 정부의 첨단 산업 중심 경

제 성장 기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불발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들의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통한 사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각종 대내외 악재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사면을 받고 경영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미래에셋자산운용, 4조1000억에 'IFC'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올 3분기 내 마무리...추가 협의 진행  
향후 사모리츠 신규 설립해 매입 예정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FC를 보유한 캐나다 대체자산 운용사인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IF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 양사는 올해 3분기 내 IFC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

도록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수대금은 4조1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16년 2조5500억 원에 IFC를 사들인 브룩필드자산운용은 6년 만에 1조5000억 원 이상의 매각 차익을 얻게 됐다.

IFC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형 복합 상업건물이다. 오피스 3개동, 콘래드 호텔, 복합쇼핑몰 IFC몰 등으로 구성됐다. 딜로이트안진, BNY 펠론, CLSA, AIG, IBM코리아, 소니 등 국내·외 금융 및 다국

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우수한 부동산투자 트랙 레코드와 자금 및 투자자 모집 능력을 바탕으로 이지자산운용·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과 2파전으로 진행된 최종입찰 과정에서 매입가를 대폭 낮춰 투자 수익률을 개선했다. 향후 부동산 투자회사인 사모리츠를 신규 설립해 IFC를 매입할 예정으로, 기관투자자의 투자 수요가 몰릴 전망이다. 미래에셋그룹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IFC몰 내부 모습.

정정욱 기자

“종합식품기업 일군 창립자 영면” 구자학 아워홈 회장 별세

작년까지 21년 간 경영 주도  
급식·식자재 사업 진두지휘



구자학 아워홈 회장(사진)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0년 7월 15일 경남도 진주시에서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고 구분부 LG 회장, 구분준 LX홀딩스 회장, 구분걸 LF 회장의 숙부다.

아워홈은 2000년 LG유통(현 GS리

테일) 식품서비스 부문이 독립하면서 탄생한 종합식품기업이다. 1984년 LG유통의 급식사업 부문으로 출발해 LG그룹 산하에 있는 계열사의 단체급식을 담당했다. 2000년 구 회장은 아워홈의 사내이사에 취임해 회사의 성장을 주도했다.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아워홈 대표이사로 급식사업을 진두지휘했다. 2010년 아워홈에 재

취임한 이후 11년 동안 아워홈 대표이사 맡다가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슬하에는 1남 3녀를 뒀다. 장남인 구분성 아워홈 전 부회장, 장녀 구미현씨, 차녀 구명진씨, 삼녀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 등이다. 이들은 아워홈의 전체 주식의 98%를 나눠 갖고 있으며, 현재 구 회장의 삼녀인 구지은 부회장과 장남 구분성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15일이다.

정정욱 기자

SPC그룹, '내 꿈은 파티시에' 참여 모집

SPC그룹이 13일까지 '제11회 내 꿈은 파티시에' 참여기관 및 참여자를 모집한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제과·제빵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6435개 아동기관 및 총 1만3424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누적 5억 7000만원이 기부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총 1억2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후원한다. 참여 모집은 제과·제빵 전문가 육성사업, 장학생 모집, 청소년 창업가 육성과정 등 총 3개 부문이다. 참여 신청은 부스리기 사랑나눔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회사 측은 “파티시에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지속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